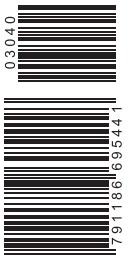


2020년  
제29호

# ART & CULTURAL INCHEON



**FACO**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

9 791186 69544 1  
ISSN 03040  
ISBN 979-11-86695-44-1



[www.artin.or.kr](http://www.artin.or.kr)

# THE ART OF INCHEON

영혼을 맑게 하는 예술지

# 예술인천

2020년 제29호



**FACO**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 수선화 옆에서

그대여,  
그리움 없이 피는 꽃을  
꽃이랄 수 있을까

그대여,  
그리움 없이 지는 노을을  
노을이랄 수 있을까

그리움이 물밑 듯 밀려와  
가슴에 멍울지는 이 아픔

하지만 그대여,  
그리움 없이 사는 인생을  
인생이랄 수 있을까

임봉주

2005년 계간 <자유문학> 신인상  
시집: <비탈에 선 꽃에게> 외 3권  
인천문인협회 회원  
내향문학회 회원





온누리를 춤의 꽃밭으로! 1992년 제1회 인천무용제

영혼을 맑게 하는 예술지

# 예술인천

2020년 제29호  
Contents

표지제호·글빛 박혁남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심사역임  
수원대학교미술대학원 서예전공 겸임교수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이사  
남동구문화예술회 회장  
한국신지식인  
빛갤러리 대표

발행인 | 이종관

기획·주관 | 송문형

편집장 | 이목연

편집부 | 이보라

취재진 | 이관형, 장서정, 왕희정

발행일 | 2020년 9월 1일

발행처 | (사)한국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

2216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78 (인천수봉문화회관 2층)

전화 | 032)873-5174, 872-7873

팩스 | 032)872-5551

홈페이지 | www.artin.or.kr

이메일 | artincheon@nate.com

펴낸곳 | 진원디자인프린트

영혼을 맑게하는 예술전문잡지 『예술인천』  
은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예술인천』에 실린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사)인천예총에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창을 여는 詩

수선화 옆에서 | 임봉주 ..... 4

## 커버스토리

온누리를 춤의 꽃밭으로! 1992년 제1회 인천무용제 | ..... 8

지상갤러리, STORY ..... 10

- 인천사진작가협회 : 김재업 <역사 속으로>, 오상석 <“겨울” 아름다운 얼음 꽃>

## 발간사

취소, 연기 그리고 또 취소... 코로나19와 예술이 공생하는 법 | 이종관 30

## 기획조명

코로나19, 그 위기와 그 대응에 대해 | 김윤식 ..... 34

## Today Click

코로나19 시대 문학인의 돌파구 | 김완수 ..... 42

# THE ART OF INCHEON



## THE ART OF INCHEON

인천미술협회, <인천 미술 60년사에 대한 연구> 발간

편집 위원장 서주선 회장 인터뷰 | 편집부 ..... 46

## FACO STAGE

1992년 춤의 해 기획사업으로 탄생해

2020년 온라인 중계로 개최된 인천무용제 | 편집부 ..... 52

## Today Issue

지역 문인을 위한 반가운 도서지원 사업 | 이선우 ..... 59

## REVIEW

인천예총 및 각 협회 ..... 64

편집후기 ..... 74

# COVER-STORY

• 온누리를 춤의 꽃밭으로! 1992년 제1회 인천무용제 •



「온누리를 춤의 꽃밭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1992년은 바야흐로 “춤의 해”였다. 페스티벌 형태의 굵직굵직한 무용 공연이 많이 열렸고, 무용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전국무용제가 태동하여 마침내 부산에서 첫 회를 개최하였다. 지역 무용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전국무용제는 부산시민들의 뜨거운 환대와 응원 아래 1992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인천에서는 같은 해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인천문화회관(現 인천수봉문화회관)에서 무용과 결합한 다양한 행사와 무용 공연을 포함한 「제1회 인천무용제」가 열렸다. 1,2 전시실에서는 유재형의 춤 사진전, 아름다운 내고향 인천전이 동시에 열렸고, 태양사우회의 영상과 인천무용단의 춤의 만남이 소극장에서 열렸다. 또한 지역 무용 발전을 위한 논단 『춤』을 발간하였다. 당시 이선주 한국무용협회인천직할시지부장은 해당 학술지의 발간사를 통하여 제1회 인천무용제를 개최하며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춤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하는 춤으로 변모하고, 예술인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길 바라는 소회를 밝혔다.



## 지상갤러리, STORY

이번호의 <지상 갤러리, STORY>에서는 인천사진협회의 사진작가 김재업, 오상석의 개인전을 그대로 옮겨 담았다.

김재업의 <역사 속으로>에는 2013년 8월 3일 19시 20분경 선인체육관이 철거되는 찰나의 순간이 실렸다. 그리고 7년 후 선인체육관의 흔적이 사라져 버린 현재의 모습까지 담겨 있어, 같은 공간, 다른 시간의 역사를 지면을 통해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오상석의 <“겨울” 아름다운 얼음꽃>에서는 흐르는 물이 얼음으로 맺히는 경이로운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자연과 시간이 어우러져 만들어 낸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우리는 결코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대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느낄 수 있다.

- 편집자 주 -



- 인천광역시 사진대전 초대작가
- 전국 제물포 사진대전 초대작가
- 5.18 민주화 운동 전국사진대전 초대작가
- 한국작가사진협회 인천광역시 지회장 (제 31대, 32대, 현 33대)
- 한국작가사진협회 28대 이사역임, 현 29대 이사
- 한국예총 인천광역시 연합회 수석부회장(현)
- 연수구사진협회 자문위원(현)

## 선인체육관 역사 속으로...

선인체육관이 2013년 8월 3일 19시 20분경 발파해체 공법으로 철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70년 4월 착공하여 1973년에 준공한 선인체육관은 동양 최대의 규모로(1만 5000㎡) 서울 장충체육관의 3배의 크기이며 홍수환 복싱선수와 알폰스 사모라(멕시코) 선수의 세계권투 타이틀인 WBA 경기가 열려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1987년에는 장정구 선수와 에프렌 핀토(멕시코) 선수의 세계권투 타이틀전 등 각종 스포츠 경기와 공연장으로 40년 넘게 사용되던 선인체육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을 2013년 8월 3일 청운대학교 옥상 등에서 촬영하였다. 그 후 7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차 옛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다시 조명해 본다.

사진작가 김재업



#### 심사

- 서울특별시시사진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 부산광역시시사진대전 심사위원 역임
- 광주광역시시사진대전 심사위원 역임
- 전국흑백사진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 대한민국정수사진대전 심사위원 역임
- 대한민국 호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외 다수

#### 수상

- 한국예총 예술상 대상 수상
- 대한민국 산업포장훈장 대통령상 수상

#### 전시

- 시장사람들 (기획전)
- 한국사진작가협회 지상전 참가
-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회원전 참가
- 인천광역시시사진연합회 회원전 참가
- 섬기행전 3회 참가
- 한·중 국제사진교류전, 한·일 국제사진교류전 참가





















- 제물포사진대전 초대작가
- 인천광역시 사진대전 초대작가
- 제물포사진대전 운영, 심사위원 역임
- 인천광역시 사진대전 운영, 심사위원 역임
- 現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감사  
사진씨클 “모임새빛” 지도위원  
연수구 사진협회 자문위원

## “겨울” 아름다운 얼음 꽃

대한민국의 사계는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뚜렷하고 아름다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그 사계 중에서도 겨울의 오묘한 자연의 섭리를 카메라 앵글에 담아보았습니다.

액체(물)에서 겨울 영하의 날씨에 동굴 속 역고드름이 석순이 자라듯이 맺히는 광경과 개천의 흐르는 물이 얼음꽃으로 맺히는 모습은 우리 인간이 감히 만들 수 없는 경이로운 작품이라 생각하며...

## 사진작가 오 상 석

### 심사

- 사진공모전 심사
- 광주광역시 무등예술제 심사
- 진주 개천예술제 심사
- 제물포사진대전 심사
- 인천광역시 사진대전 심사
- 기타 사진공모전 50여회 심사

###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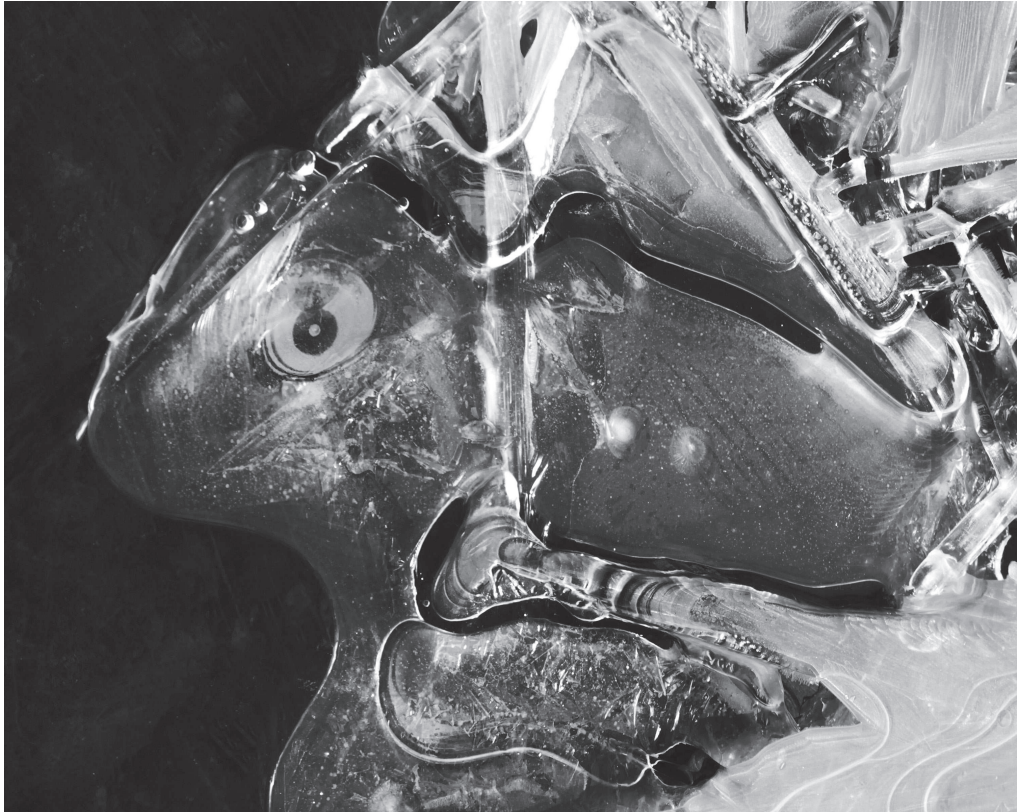
- 인천예술 예술상 수상
- 제물포사진대전 대상 수상

### 전시

-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회원전 참가
- 인천광역시 사진연합회 회원전 참가
- 한국사진작가협회 지상전 참가
- 한중 국제사진교류전 참가
- 한일 국제사진교류전 참가
- 사전모임 “새빛” 사진 전시회 30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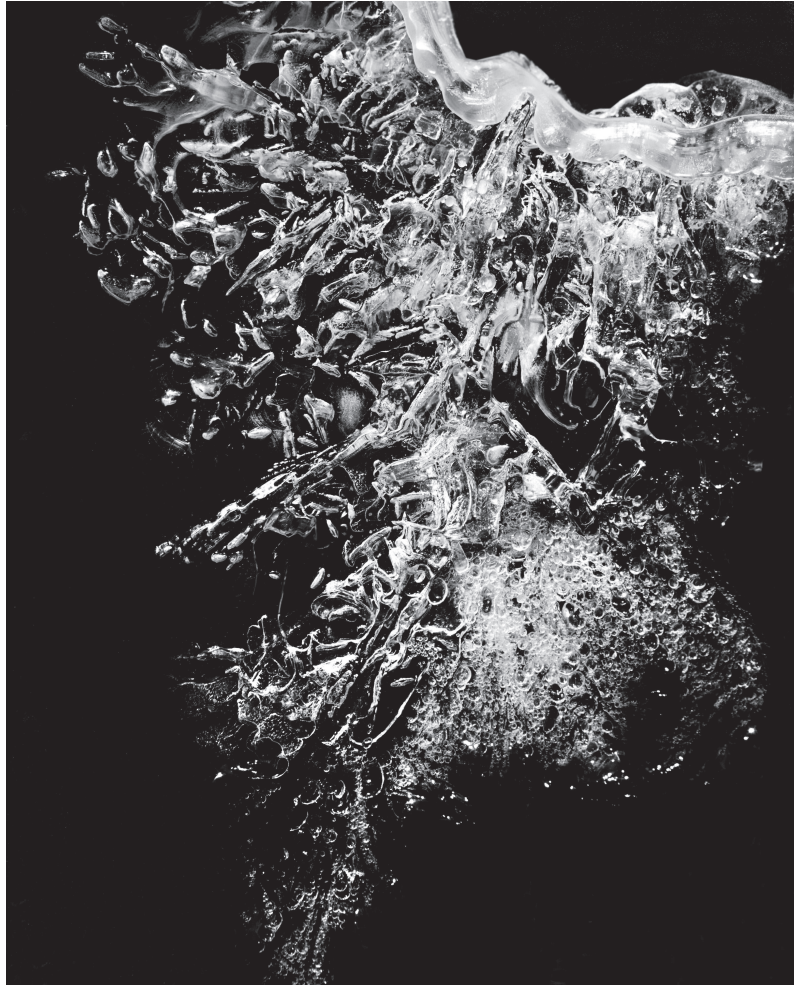




















## 취소, 연기 그리고 또 취소... 코로나19와 예술이 공생하는 법



(사)인천예총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인천수봉문화회관은 2월 24일, 올해 처음으로 휴관을 했다. 예정되어있는 대관 공연은 물론 전시실, 연습실의 대관도 모두 취소했다. 그 무렵 우리는 환절기 감기처럼 이 바이러스 역시 한 계절 앓고 지나가고 나면 평소와 같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런 바람과는 달리 계절이 봄의 한가운데를 관통하여도 재개관 공지를 쉽사리 올릴 수 없었다. 그때서야 짐작했다. 이 바이러스와 우리는 오랫동안 공생하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휴관하고 숨을 죽인 채 추이를 지켜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할 때라는 것을. 4월에 접어들며 연이은 공연의 취소로 가장 피해가 막심할 예술인들을 위하여 ‘온라인 무관중 공연’을 위한 제한적 대관을 받았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온라인 무관중 공연’에 관한 지원금이 가장 첫 번째로 나왔지만, 그에 반해 정작 예술인들이 설 무대는 대부분 ‘휴관 중’이기에 온라인 예술 활동에 필요한 무대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모두의 노력 덕분에 5월부터는 코로나19와 이별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여, 단계적으로 개관을 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방역물품을 구비 하고, 공간의 크기에 비례해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해 대관 준비를 했다. 5월 20일부터는 시간별로, 공간별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1단계 개관을, 6월 1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전면 개방에 준하는 2단계 개관을 할 예정이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이 재난에서 벗어나 ‘정상’의 세계

로 돌아갈 준비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다시피 인천수봉문화회관이 위치한 미추홀구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2단계 개관은 보류되었고, 휴관을 무기한 연장하는 공지를 또 올려야 했다. 비단 미추홀구의 일뿐만이 아닌 게, 종로구에서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약 없이 휴관한 공공기관이 239개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그리워하는 것은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은 무대에 오르고,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라도 공연을 보고, 각 기관들은 탄생의 목적에 맞게 기능을 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상이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우주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하는 거창한 것이 아닌 너무나 평범한 일상 말이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그 평범한 것이라는 기준이 바뀌었다고 한다. 다시는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으며 코로나19와 상생하는 뉴노멀 (New Normal) 시대의 “새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예술인천〉 제29호에는 사상초유의 팬데믹이라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예술활동을 멈추지 않으려는 예술인들의 지난한 노력을 담았다. 인천무용협회는 인천무용제를 인천예총 회원협회 중에서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중계로 진행했다. 그 뒤를 이어 인천연예인협회의 제24회 i-POP페스티벌과 인천음악협회의 인천음악제 또한 온라인 속의 무대에 올랐다. 인천영화인협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하여 자동차극장을 열었다. 인천사진협회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56회 인천광역시사진대전을 치뤘고, 인천미술협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작품기증전을 열었다. 인천문인협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간지 〈학산문학〉 107호와 108호, 〈인천문단〉 49집을 발간했다. 인천국악협회는 전국에서 모인 국악인들을 대상으로 제20회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를 철저한 방역 아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치뤘다.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예술 행위는 멈출 수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된 해로 함께 기억할 것이다.

예술은 닿지 않고도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이니까 말이다.

2020년 9월

(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 회장 이종관



## 기획조명

- 코로나19,  
그 위기와 그 대응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지자체 별로 쏟아져 나왔고, 인천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지금이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 아무도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몇 개의 계절을 보내며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전까지는 재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정책들이 정말 필요한 예술인에게 지원책이 적재적소에 흘러갔는지 다시금 고민해 볼 시기이다.

이를 위해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김윤식 시인에게 코로나19, 그 위기와 그 대응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 편집자 주 -

# 코로나19, 그 위기와 그 대응에 대해

글 · 김윤식 시인, 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1. 시작하는 말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이 지자체별로 경쟁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천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나왔으나,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였는지는 의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을 위한 대책이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돌린다고 해소될 일인지 의문이며, 예술인에게 지원해준 지원금도 정말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돌아갔고, 그것이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얼마 전 인천예총으로부터 나는 이런 요지의 내용이 적힌 원고 청탁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난리를 치르면서, 예술인들이라면 혹 의문을 가져 보았음직한 내용이었다. 솔직히 나 또한 얼핏 같은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거두절미, 이 부분만을 발췌해 놓았으니 읽는 이에 따라서는 한 번도 꺾어 보지 못한, 국민 전체가 다 당하고 있는 전대(前代)에 없던 이 재앙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그나마 지원이라도 있었다면 다행으로 여겨야 마땅할 터인데, 무슨 불평-떡을 쥐어주니 떡이 작다느니, 맛이 없다느니-의 목소리를 내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거니와, 이 청탁은 결코 그 같은 불평을 말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순수한 본뜻은 기왕의 지원 실태를 점검해 봄으로써 향후 또 다른 비상한 사태에 이르렀을 경우, 지원자의 선의(善意)가 왜곡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긍정할 수 있겠는가,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지원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강구해 보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혹시라도 예술계 일각에 있을 수 있는, 앞서 제시한 청탁서상의 의문까지도 잠재울, 그 어떤 묘책이나 처방을 찾아보자는 의도였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당하여 긴급히 내놓은 대책들이라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효율적이었는가, 그 허실을 살펴보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답의 지점을 향해 나아가 보자는 생각에서 제언의 하나로 제시된다는 점을 밝힌다.

## 2. 그간의 지원 실태

서두에 인용한 청탁서의 글은 지난 1월 이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 지자체가 시행한 예술계에 대한 지원 실상이 어떠했나를 간추려 보여준다. 즉, 누가 읽어도 행간 속에서 ‘졸속’이라는 말을 이내 감지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일부 대책은 솔직히 속수무책! 솔직히 허둥지둥 그 자체였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단 예술계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분야가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 이 부분만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2월에 들어 모두 코로나19가 결코 심상하지 않은 사태임을 깨달았지만, 거기에 효율적으로 즉각 대응할 만한 속책(速策), 상책(上策)이 있을 리 없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듣지도 못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어, 이것 봐라!’ 하는 사이에 빠르게, 무섭게 세상을 팬데믹에 빠트려 버렸으니 차라리 당연한 일이었다.

당장 온전한 묘책은 없고, 그렇다고 서둘지 않을 수는 없고, 더구나 다른 분야에서는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할 테고…. 그래서 나온 것이 늘 해오던 사업에 돈을 조금 더

없거나 부랴부랴 생각해 낸 것들로서, 결국은 앞서의 청탁서 내용과 같은 예술계의 의문과 불평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서울이나 중앙 차원의 지원은 별개로 하고, 우선 그간에 인천시가 내놓은 대책은 이러했다. 대략 인천 문화재단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예술인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20억여 원의 현금을 책정하고 몇 가지 방법으로 지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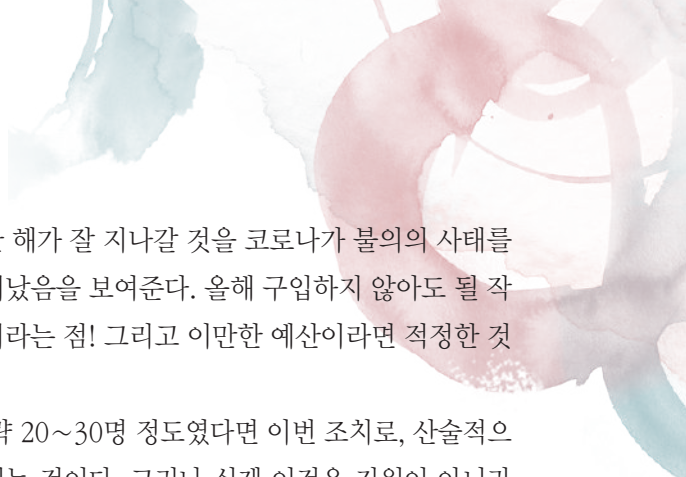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인천 예술인들이 존엄성과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이라고 그 의미를 새겨 놓은 이 지원은 그 다른 행정 분야와의 ‘상대적 액수’ 문제, 예술 분야 간의 ‘비중’ 문제, ‘지원 형태’와 거기에 따른 ‘세부 절차’ 같은 것들을 살필 때, 과연 이런 식의 지원이 ‘긴급 재난 지원’이란 말에 합당한가 하는 점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궁금한 대로 먼저 20억여 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부터 생각해 보자. 물론 이 액수에 대한 설명은 아무데도 없다. 추측컨대 혹시, 경제 산업 분야나 일반 복지 분야 같은 부문에 지원금을 책정하면서 예술계에도 뭐 이런 정도쯤은, 하는 식으로 몇 %를 적당한(?) 비례로 할애한 것인지, 아니면 문학, 미술, 음악 등등 예술 분야를 대강 아울러 따지다 보니 이만한 금액에 이른 것인지... 그리고 이 총액은 시정(市政)의 다른 여러 분야에 대비해 합당하다고 할 만한 것인지...

이런 의문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시 정부가 내놓은 돈의 크기가, 예술계가 코로나19에 의해 위기에 처했다고 했을 때, ‘일차적 처방으로 시급히, 반드시 쓰여야 할 절대 액수 개념’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창궐하는 코로나19에 의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인천 예술인들이 존엄성과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긴급히 시행하는 지원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말은 결코 20억여 원이 많다 적다하는 차원이 아니다. 이 돈이 쓰인, 곧 지원 형태 몇 가지 사례에서 이 돈은, 이 돈의 액수는, 영겁결에, 혹은 허둥지둥, 혹은 주먹구구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미술 분야의 ‘인천 작가 미술작품 구입 확대’ 지원 사업의 경우 그 같은 사실은 더욱 명확하다. 이 금액은 당초 금년 예산 1억 9백만 원에다 코로나 긴급 지원금 3억 원이 추가로 없



힌 합계금이다. 여느 해 같으면 1억 원으로 한 해가 잘 지나갈 것을 코로나가 불의의 사태를 일으킴으로 해서 그보다 세 배의 돈이 더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올해 구입하지 않아도 될 작품을 이 사태로 인해 미리 당겨 구입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만한 예산이라면 걱정한 것일까.

아무튼 평년의 미술품 구입 대상 작가가 대략 20~30명 정도였다면 이번 조치로, 산술적으로 최소 총 80~120여 작가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 매년 작가의 정당한 작품 판매인데, 금년에는 그만 지원금 테두리에 둘러싸이게 된 꼴이다.

어쨌거나 이 3억 원 증액이 인천 미술인들이 당한 ‘생존의 위협’을 막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존엄성과 자긍심을 잃지 않게’ 해 주었을까. 그리고 최소한 1백여 미술인이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 미술인으로서 존엄성과 자긍심을 잃지 않는다면, 인천 미술의 근간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판단인가.

더불어 문제는 이 지원 대상 1백여 미술인은 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느 미술인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급박하게 ‘생존의 위협’에 내몰려 있는가 하는 점을 따져야 할 것처럼 보인다. 거기에 다시 ‘존엄성과 자긍심을 잃지 않을’ 작가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신청한 여러 작가 중에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라내야 할 것인데, 모르기는 해도 작품성이니, 활동경력이니, 연령, 직업, 등등 작가의 제 조건 따위를 따져 ‘선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긴급 지원 성격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인천문인 지원 도서구입 사업도 또한 주먹구구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생존의 위협’을 막아주는 지원과는 사뭇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작가 한 사람당 20만 원 범위 안에서 작가 자신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것인데, 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참으로 한가한 지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를 당해 그렇게도 절실했던 지원 방안인가 하는 점에서 여러 작가가 실소(失笑)를 머금으며 신청 대열에 낀 것을 보았다.

고령 예술인을 지원하는 또 다른 어느 사업에서는 상당한 재산가가 거액의 현금 지원을 받는가 하면, 한 공연 지원 사업에서는 참가만 해도(원고 몇 페이지만 써 내도) 지원금을 분배해주는 사업도 있었다.

분명 20여 원이 다 이런 식으로 쓰였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졸속이라는 평가, 그리고 불평은 이 돈의 만분의 일이라도 비효율적으로, 절실하지 않게 쓰였을 때 반드시 제기된다는 사실이다.

지원을 위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절차도 문제였다. 열이면 열 사람을 다 지원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어디서든지 선정 자격을 따지고 기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술 활동 증명’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프리랜서 같은 부류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또 고령자들의 미숙한 전자기기 사용과 전자문서 처리 문제... 긴급 지원에 있어 행여 복불복(福不福)이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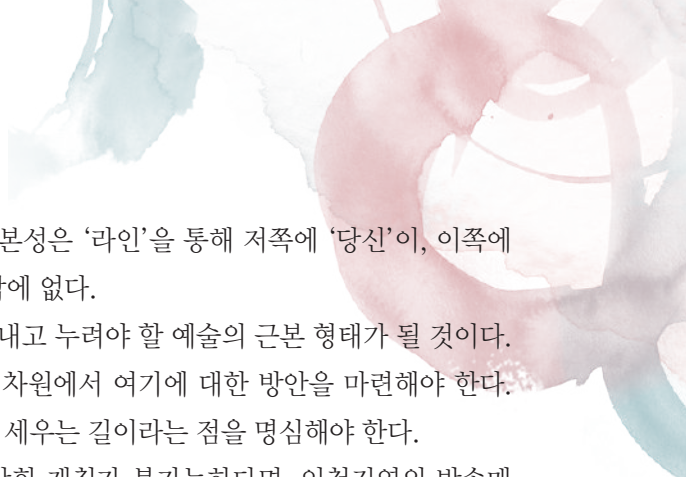
이렇게 쓰면 책망처럼 들릴 것이나 본뜻은 돈을 내놓는 측이나, 그 돈을 예술가들에게 집행하는 쪽이나, 또 받아 연명하는 측이나, 기왕의 지원 실태를 함께 되돌아보고 해답을 찾자는 것이다. 다 똑같이 다급했던 마당에 허둥지둥 내놓은 것인들 이번은 인정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 3. 가능한 제언?

코로나19는 결코 종식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세계적인 감염병 전문가들이 내놓은 진단이다. 이 말은 코로나 이전 시대로 회귀는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급속한 전염과 감염 때문이지만, 코로나19의 특징은 인간을 해쳐 놓는 것이다. 단절시키고 고립시키고 파편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사람 ‘人’ 자의 두 획은 이 2020년을 기해 갈라져 분해되고 말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뀌어야만 한다. 더 이상 단발성 땀질식 ‘긴급 지원’이 아니라 이제는 상시 예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술로서 섬처럼 고립되어 버린 ‘우리’를 어떻게 다시 원래의 ‘人’ 자 형태로 복귀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내놓을 제언은 온라인화이다. 진부하리만치 알려진 이야기이나 이것이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에 대처하는 근본 방법이다. 인간 본성이 서



로의 체온을 갈망하는 것이라 해도, 이제 그 본성은 ‘라인’을 통해 저쪽에 ‘당신’이, 이쪽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신호로써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창작해 만들어 내고 누려야 할 예술의 근본 형태가 될 것이다. 시 행정부나 예술 주체, 단체는 항구적 정책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이 시대의 예술의 근간을 세우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코로나19로 인해 미술전람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면, 인천지역의 방송매체와 연계해 영상 전람회를 여는 방법이다. 지원자인 시 행정부가 방송매체와 작가 쌍방을 지원함으로써 공적 온라인화를 꾀하는 것이다. 음악회도 또한 마찬가지이고, 연극 같은 공연예술 분야도 가능하다. 문학이나 미술 부문은 신문 같은 종이매체에 의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시 행정부, 방송매체, 예술 주체가 세밀한 정책적 기획과 연출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개인이 산발적으로 행하는 것은, 종전처럼 문화재단이나 지원 주체가 심사, 선정하는 것이다. 다소 곁핍기식으로 이야기한 감이 있으나 이는 좀 더 전문적,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제언은 ‘예술 주체’(개인이든 단체든)에 대한 기본적이고 세밀한 조사와 자료의 필요성이다. 만약 이런 자료만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 해도 이번 같은 긴급 지원 상황에서 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돌아갔고, 그것이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 같은 의문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매년 해 오던 사업에 돈 몇 푼 더 없어 ‘긴급 지원’이라는 주먹구구 정책을 내놓아 실소케 하는 일도 없었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더구나 이것은 코로나19 사회에 있어 예술인의 복지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도 필수적이다. 이 자료로부터 문화 예술인들의 복지 문제 역시 성안(成案)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런 측면에서도 시 행정부나 예술 단체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예술인 개개인 삶을 지원해야 하는가, 예술 전반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도 필요하나, 어차피 예술인 개개인의 삶을 모조리 다 지원할 수 없다면, 큰 틀에서 예술 무대를 확충하고 그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정책이 백 번 옳을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거니와 이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술의 쇠퇴와 소멸을 막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오늘 이 같은 제언은 과연 가능한가.

#### 4. 끝말

문화 예술 강국이니 선진국이니 하는 나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문화 예술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가장 자생력이 떨어지는 분야여서, 가장 쉽게 위기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현실 경제에 매우 취약하다는 반증인데 이 부분은 국가 정부가 메워야 한다. 단,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의미에서이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전 세계 누구도 예상 못한 초유의 재앙이었으니 어쩔 수 없이 법석을 떨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얻은 지혜를 활용해, 혹시 두 번째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때에는 결코 법석도 시행착오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본 자료와 매뉴얼을 손에 가진 채, 행사 성격의 지원 사업이 아니라 예술의 토양을 굳건히 하는, 그런 항구적 방책을 발상해 내야 한다는 점도 힘주어 말한다.

김윤식

시인  
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Today Click!

- 코로나19 시대,  
문학인의 돌파구

코로나19 시대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나가는 문학인의 소회와 돌파구는 무엇인지 들어 본다.

- 편집자 주 -

## 코로나19 시대, 문학인의 돌파구

글 · 김완수 인천문인협회감사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는 2019년 12월 처음 발병한 유행성 질환으로 처음 세계 보건기구에서 정한 공식 명칭은 ‘코로나19’(Covid-19)이다. TV로 그에 관한 뉴스가 처음 소개될 때, 다수의 한국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2020년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되자, 코로나19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3월부터 코로나19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연일 대부분의 매스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뉴스가 점점 요란해졌다. 인천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수시로 나오며, 코로나19는 심각한 공포로 나에게 엄습했다. 외출을 자제하고 온종일 칩거했다. 독서나 집필을 하며, TV 시청이나 음악 감상으로 기분전환을 했다. 단지 하루에 한두 번, 마스크를 쓰고 아파트 공원 산책을 하거나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게 외출의 전부였다. 거리나 마트의 풍경은 코로나19 이전과는 너

무나 달라졌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가까이 다가오는 상대방을 경계하는 눈치를 보였다. 가장 마음이 씩씩했던 상황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평소에 인사를 나누던 아래위층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라도 만난 것처럼 외면하는 것이었다.

한두 달 지나면서, 다행히 정부와 방역 당국의 노고로 코로나19는 진정 국면을 보였지만, 나의 삶은 점점 지루하고 답답해졌다. 특히 문인협회의 공식적인 모임이나 문학동아리의 친목 모임마저 수개월 중단하게 되니까 외적인 문학 활동이 완전 마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로 인한 질식할 것 같은 증상을 완화하고자 휴대전화 문인 단톡방을 통해 문우들 간에 안부를 묻고 심적인 고통을 나누며 위안을 얻었다.

특히 학교나 구청, 도서관 등에서 강의를 하던 분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강의가 중단되어 물심양면으로 타격이 큰 것을 호소하였다. 대면(對面) 강의를 할 수 없어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방식의 강의 준비와 진행에 예상치 못했던 애로를 겪는다고 하였다. 일부 문우들은 자신이 활동하는 인터넷 본인 홈페이지나 문학동아리 사이트를 통해 작품 발표 및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고 했다. 다수의 문우는 거의 대외적인 활동 없이 독서와 창작으로 코로나19로 유발된 답답증이나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있었다.

영문학을 전공한 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출판물 불황의 울타리를 뛰어넘기 위해 저만의 장점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출간할 영문 도서 집필에 전념하며 세계적인 작가로 도약하려 애쓰고 있다. 한가한 시간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 문인들과 소통하며 국제적인 시인단체들에 작품을 게재하기도 하고 타국 시인들의 작품을 감상하기도 한다. 해외 출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여러 나라 작가들과 수시로 대화하며 인맥을 확대하고 있다.

문학인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인들은 장기화할 수도 있는 비대면(非對面)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독자들이나 애호가들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소통, 홍보 및 판매 전략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유튜브를 포함한 온갖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내 및 해외 동호회 단체들의 활동은 물론, 작품이나作品集 홍보 동영상 올리기, 시 낭송, 수필이나 소설 읽어주기, 구연동화 같은 작품 낭독회, 개인 강의, 전시회, 공연 등을 추진해보길 권한다.

인천의 예술인들도 각양각색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와 시도(試圖)로, 비대면 시대의 위기를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싸이, 동방신기, 방탄소년단과 같은 케이팝 스타들, 조수미, 신영옥과 같은 성악가들, 백남준 같은 세계적인 공연예술가처럼, 한국을 빛내는 세계적인 예술인으로 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며 도전해야 할 것이다.

팔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인천예총의 혁신적인 변신과 눈부신 발전을 기원한다.

김완수

인천문인협회 감사, 영문학박사, 시인  
시집 《Prescription of Civilization 문명의 처방전》(미국 출간), 《Flowers of Thankfulness 감사꽃》(미국 출간)  
세계평화문학상(뉴욕에서 수상), 황금찬시문학상(우수상,  
The Golden Prize(금상, 외국 시문학 단체 Poetry City에서 수상), WEWU 문학상(인도 문학 단체에서 수상)



# The ART of INCHEON

- 〈인천 미술 60년사에 대한 연구〉  
- 편집 위원장 서주선 회장 인터뷰

인천미술협회와 대동서화동연회가 발전적으로 결합되어 한국미술협회 인천지부가 결성되었던 1961년으로부터 60년 되는 해에 맞춰 발간할 계획인 〈인천 미술 60년사에 대한 연구〉는 인천미술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집필을 기획한 기념 기록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인 서주선 인천미술협회 회장과 서면 인터뷰를 통하여, 〈인천 미술 60년사에 대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집필될 예정인지 들어본다.

- 편집자 주 -

# 인천미술협회, 〈인천 미술 60년사에 대한 연구〉 발간 편집 위원장 서주선 회장 인터뷰

글·편집부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흔히들 ‘오래된 미래’라고 부르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천은 근대 미술의 근원지였고, 많은 예술가들이 쌓은 반짝이는 업적들이 있었지만, 인천의 미술사를 정리한 자료는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던 차나 인천미술협회에서 〈인천 미술 60년사에 대한 연구〉(이하 ‘인천 미술 60년사’)를 정리한다는 소식을 들어 인터뷰를 준비했다.





〈인천 미술 60년사에 대한 연구〉  
편집 위원장 서주선 회장

Q. 19세기 후반 개항기부터 해방전 후까지가 인천 미술이 한국미술사를 주도하는 시기였을텐데, 그 시기를 지난 직후인 1960년을 기점으로 60년사를 집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 인천 미술 60년사는 인천미술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집필을 기획한 기념 기록물로서 인천미술협회와 대동서화동연회가 발전적으로 결합되어 한국미술협회 인천지부가 결성되었던 1961년으로부터 60년이 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60년사라고 칭하였으며 그 시점에 맞춰 발간할 계획인 것입니다.

Q. 2019년 인천 근현대미술 100년사 위원회가 발족하여 3년간 인천 근현대미술사를 편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작중이고, 공개된 것은 해당 위원회 명단 밖에 없지만, 인천 근현대미술 100년사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A. 본 협회와는 무관한 사업으로 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도움을 청해왔는데 본 협회에서는 이미 60년사를 계획하고 있던 차라서 이사회회의에 회부를 한 결과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을 터이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리하여 기록의 범위와 진행 사항 등 정확한 정보를 알지는 못하지만 짐작컨대 100년간의 인천미술사를 포괄한 방대하고도 엄청난 역작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꼭 잘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Q. 지역 미술사의 경우 정리된 자료가 부족하여, 자료수집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960년부터 2020년까지 방대한 양의 인천의 미술사를 집필할 때, 해당되는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궁금합니다.

A. 인천미술협회 고문님과 원로작가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수집하고 각 분과에서 편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 중입니다만 사업기간과 예산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던 차에 인천예총에서 몇 년 전에 인천예술 30년사 발간을 진행하였는데 미술협회 부분을 본 협회 회원이신 이경모 평론가께서 맡아서 집필하는 중이었으나 완성되지 못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원고를 기초로 편찬위원들이 가감하여 수정하고 이경모 평론가께서 완고를 첨가해서 발간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미술사 편찬의 서술경우 어떤 경향이나 흐름을 시기별로 구성하여 정리하고 계신지, 개개인의 작가론들로 구성하고 있는지 큰 흐름이나 목차구성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여 편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 인천미술협회 창립 과정과 그 이후부터 기술을 기준으로 하며 년도 별로 협회 행사와 분야별 동호인 활동을 함께 기록하여 인천미술과 본 협회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단편적인 구성이 될 것입니다만 그 시대에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회원의 면면은 약술이나마 하도록 하여 발간될 것입니다.

Q. 인천문화재단의 후원으로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의 편찬 작업이 몇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에 비해 사업기간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우 짧은 기간인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인천미술협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든 인천미술사를 포괄하지는 않으므로 방대한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짧은 기간을 잡았습시다만 그래도 최소한 2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하였지만 예산 확보 등 여러 여건이 허락하지 않



있습니다.

Q.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자문위원장 노희정  
자문위원 강난주, 김재열, 리지훈, 엄규명, 이삼영, 이준구, 최원복  
집필위원장 이경모  
집필위원 임희숙, 황홍철, 최은주  
편찬위원장 서주선  
편찬위원 한국화 - 김정희, 박진이, 서경애, 임원빈  
서양화 - 김순금, 김연옥, 박희선, 신주향  
수채화 - 강형덕, 이순자, 전봉선, 한복순  
서예 - 박영래, 변효숙, 이원숙, 이지숙  
문인화 - 권경자, 김미숙, 이연재  
조각 - 이찬우  
공예 - 오세완, 정기호  
한국화 - 조흥기  
민화 - 홍대희

Q. 보통 훌륭한 예술가는 수십년 혹은 수백년까지 앞서 간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천 미술 60년사 안에서 지금 2020년 현재에 활동하셨더라면 과거보다 더 빛났을 예술인이 누구일까요?

A. 인천에는 이당 김은호, 검여 유희강, 동정 박세림 선생과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단한 미술인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현대에 활동하셨을 때 모든 분들이 어머셨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당 김은호 선생의 경우는 일제강점기가 아닌 요즘 같은 시절에 활동

하셨다면 그 훌륭한 작품으로만 평가를 받는 대단한 작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Q.** 인천 미술 60년사에 인천미술협회의 설립과 현재까지의 업적 또한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미협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인천미협에서 했던 행사 중에서 특히나 의미가 있거나 다시금 주목할 만한 행사나 업적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A.** 제가 취임한 후에 해양도시로서 인천을 알리는데 있어 인천미술협회의 역할을 고민하다가 해양축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시작하여 2018년부터 송도컨벤시아 전시홀에서 대규모 행사로 열었으며 금년은 2020 인천미술해양대축전이라는 이름으로 12월 19일부터 송도컨벤시아 1전시홀에서 개최됩니다.

**Q.** 인천 미술 60년사 편찬 이후 관련된 전시회나 토론회, 세미나등 연계된 행사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60년사 발간에 관련된 세미나는 아니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를 위한 세미나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분관 성격으로 세계적 관문인 인천에 우리나라의 근대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이 생겨야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갖으려합니다. 인천미술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인천미술협회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FACO STAGE

- 1992년 춤의 해 기획사업으로 탄생해 2020년 온라인 중계로 개최된 「인천무용제」

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는 사상 초유의 팬데믹 속에 2020년 6월 25일 목요일과 27일 토요일 7시 양일간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제29회 인천무용제를 개최하였다. 내년 30회를 맞는 「인천무용제」를 기대하며 29회를 지켜올 동안 그 무대 위를 거쳐 간 무용인의 몸짓이 ‘은누리를 춤의 꽃밭으로’ 모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 편집자 주 -

# 1992년 춤의 해 기획사업으로 탄생해 2020년 온라인 중계로 개최된 「인천무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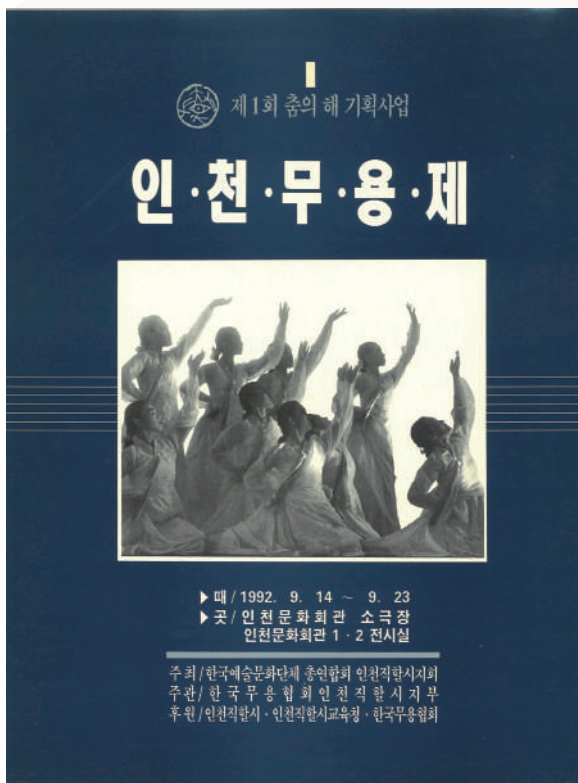
글 · 편집부

## 응답하라 1992! 춤의 해에 탄생한 「인천무용제」의 시작

「온누리를 춤의 꽃밭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1992년은 바야흐로 “춤의 해”였다. 페스티벌 형태의 굵직굵직한 무용 공연이 많이 열렸고, 무용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전국 무용제가 태동하여 마침내 부산에서 첫 회를 개최하였다.<sup>1</sup> 지역 무용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 이란 기대와 함께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전국무용제는 부산시민들의 뜨거운 환대와 응원 아래 1992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인천에서는 같은 해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인천문화회관(現 인천수봉문화회관)에서 무용과 결합한 다양한 행사와 무용 공연을 포함한 「제1회 인천무용제」가 열렸다. 1,2 전시실에서는 유재형의 춤 사진전, 아름다운 내고향 인천전이 동시에 열렸고, 태양사우회의 영상과 인천무용단의 춤의 만남이 소극장에서 열렸다. 또한 지역 무용 발전을 위한 논 단 『춤』을 발간하였다. 당시 이선주 한국무용협회인천직할시지부장은 해당 학술지의 발간사를 통하여 제1회 인천무용제를 개최하며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춤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하는 춤으로 변모하고, 예술인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길 바라는 소회를 밝혔다.

1. 장광열, (1992), 92 춤의 해를 총정리한다. [ARKO] 문화예술, (월간문화예술), 1992년 12월호



제1회 인천무용제 리플렛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황폐해버린 인천 무용계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무용인, 학생, 일선교사들을 일깨워 「국제웨스티벌」, 「아시아 태평양지역 춤과 노래의 제전」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것을 비롯한 국제행사와 전국단위공연 및 인천 행사를 많이 마련함과 동시에 무용인 육성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제는 보여주는 행사에서 함께하는 「춤」으로 변모하여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춤꾼들이 뒷바라지에 의존만 하지 말고 한사람 한사람이 공연 또는 학술적 면으로 홀로서기에 노력하여, 모두가 공감하며 아름답게 접할 수 있는 진정한 「춤」이 인천에 뿌리를 내리도록 젊은 춤꾼들이 힘차게 도약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인천무용제」를 열어 그 일환으로 학술지인 「춤」과 「춤 사진전」 「사진·영상과 춤의 만남」도 함께 펼쳐집니다.

- 학술지 『춤』의 발간사 중 일부 발췌

1992년 「인천무용제」에는 10팀이 참가했다. 새곡식을 추수하였다는 뜻의 신곡맞이로 굿판을 연 유옥선, 김옥분의 〈신곡맞이〉(주제:무속)와 박혜경 안무의 현대무용 〈Start〉로 시작되었다. 김황룡과 박선옥은 죽은사람과 산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



제1회 인천무용제 프로그램



는 곳 중에 한 과장인 <시왕가름>을 무대에 올렸다. 안무가 조은숙의 발레공연 <죽은 이를 기리는 노래>와 함께 이어져 한 주제를 다른 장르로 표현하는 예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국무용 <안개의 뒹>은 이명신의 안무로 희미한 안개 속의 그리움을 한국무용으로 표현하였고, 조승미의 안무로 <발레작품 돈키호테와 뮤지컬 캣츠, 창작발레 작품 영광>을 묶어 발레작품을 선보였다. 신화와 전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레 공연에 맞게 각색하여 만든 <마의 피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들까지도 량이의 피리 소리에 반하여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다룬 문치빈 안무의 발레공연이다. 전쟁으로 인한 이념 갈등에서 생기는 세대 간 갈등을 주제로 세대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젊은 몸짓을 오문자의 안무로 구성한 현대무용 작품 <서있는 아버지와 아들> 또한 선보였다.

김경숙의 안무로 <I. 기도 II. 유리창에 걸린 영혼의 진실 하나> 라는 현대무용 작품과



제1회 인천무용제 프로그램

제 1 회 인천무용제

제 1 회 인천무용제

오문자의  
있는 아  
마의 피리  
바지 와 아들

꽃피면의  
마의 피리

박해경의 Staff

1992. 9. 20

문화회관 1992. 9. 15~16 P.M 7:30~8:30

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 주최 / 후원 / 회원

주최 / 주관 / 후원 / 회원

메종인원직할사회  
한국무용협회 인천직할시지부  
인천직할시 - 인원직할시교육청  
한국무용협회

회원권 일반 5,000원 학생 3,000원

제1회 인천무용제 입장권

우리 춤의 특징인 즉흥성을 가장 많이 살릴 수 있으며 춤추는 사람에 따라 흥과 멋을 뜻대로 빚어내어 다양한 움직임으로 자기의 진실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우리 춤의 기본인 이애주의 <한영숙류 살풀이>, <한영숙류 승무>를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렸다.

## 사상 초유의 팬데믹 속, 온라인 중계로 개최된 2020년의 인천무용제

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는 2020년 6월 25일 목요일과 27일 토요일 7시 양일간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제29회 인천무용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29회 인천무용제」는 지난 회차들과는 다르게 국내의 우수한 무용 작품들에 집중하여 계획하였다. 서울발레시어터(SBT), 와이즈 발레단, 신은석 Ss발레단 등 국내 우수한 발레단체를 개막 특별 초청작으로 초청하여 그간 인천무용제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발레 장르를 더해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 장르 순수무용을 경험할 수 있는 무대로 준비

하였다.

「인천무용제」는 인천에서 활동 중인 단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전국무용제에 참여하는 지역의 대표를 선발하는 무대로 올해에도 인천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4개 단체가 참가했다.

경연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에 인천의 춤을 알리게 될 단체부문 경연작품은 현실과 내면의 간극으로 인해 아파한 시인 윤동주를 모티브로 한 ‘나영무용단(안무 김명주)의 한국창작 무용 작품<2.0.2.0. 윤.동.주. 불멸하다>’와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가라앉고 있는 파야섬을 모티브로 인류의 삶 앞에 놓인 환경문제를 이야기하는 ‘나누리무용단(안무 강선미)의 한국창작 작품<파야 21.5>’, 우리란 무엇인지,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 ‘이테아댄스컴퍼니(안무 김기훈)의 현대무용 작품<On the ROAD>’, 하회별신굿 탈놀이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우리 삶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컴퍼니시가(안무 안지형)의 현대무용 작품 <해탈>’ 등 총 4개의 작품이었다.

이중 전국무용제에 나가 인천의 무용을 알리게 될 단체부문에 선정된 팀은 ‘나영무용단(안무:김명주)의 작품 <2.0.2.0. 윤.동.주. 불멸하다>’로 선정되었다.

그 외 2020년도 전국무용제 솔로&듀엣 부문, 지역 추천작으로 안무자 본인의 한자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갖는 의미를 작품화 한 ‘강천일 안무의 현대무용 작품<하늘 천, 하나 일>’이 경연프로그램 축하무대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무대들이 관객과 예술인들을 맞이하지 못하고 비어있었지만, 「인천무용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29번째의 명맥을 이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온라인 생중계로 지역을 넘어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한 행사였다.

## 2021년 30회를 맞이할 인천무용제를 기대하며

「춤의 해」에 태어나 내년이면 30회를 맞는 「인천무용제」를 통해 선발된 우리 인천의 무용 작품들이 전국무용제에 참가하여 은상, 동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하고, 더 나아가 전국의 무대에 인천의 무용을 알리는데 애써왔다.

<인천무용제>가 ‘처음’ 탄생하기까지, 그 전년도, 혹은 훨씬 더 이전부터 지역무용제를 탄



생시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노력이 인천무용제의 태동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 선주 한국무용협회인천직할시지부장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인천이 개화가 제일 빠르게 이루어진 곳이어서 우리의 숨결이 남아 있지 않은 곳으로 여겼으나 인천이 지명만 있는 곳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싫어서 -오기가 나서- 내가 자란 곳에 눈을 돌려보니 이곳에 귀중한 민속들이 간끼에 숨어있음을 알게 되어 내 고향 인천으로 돌아와 이것들을 갈고 다듬기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매달렸다”고 학술지 『춤』을 통해 밝힌 바 있다.

2020년은 모든 계획들의 무덤이 되었다. 코로나19로 많은 예술인들, 더불어 관객들 또한 원래의 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 유보되고 있다는 불만만을 말하기보단, 30년 가까이 전통을 지켜온 행사의 ‘처음’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것을 탄생시킨 많은 이들의 열망과 에너지를 상기하며 또 다른 태동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내년 30회를 맞는 「인천무용제」를 기대하며 29회를 지켜올 동안 그 무대 위를 지나간 인천 무용인의 몸짓이 「온누리를 춤의 꽃밭으로」 모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 Today Issue

- 지역 문인을 위한  
반가운 도서지원 사업

인천문화재단은 지역 문인들에게 읽고 싶은 도서를 인천 내 작은 서점을 통해 대신 구매해 주는 <인천 문인 도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소설가가 지원받은 도서를 살짝 들여다보면서 이 재난을 버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편집자 주 -

# 지역 문인을 위한 반가운 도서지원 사업

글 · 이선우 소설가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변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늘어났다. 지인이나 친척을 오랜만에 만나도 포옹, 악수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에 섰다. 함께 먹으면서 정든다는 우리의 오랜 문화는 먼 곳에서 우리를 생뚱맞게 바라보게 할 뿐이다. 오프라인 문화는 멀어져 가고 디지털 문화가 성큼 다가왔다.

작가가 도서관을 자주 드나드는 것은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구양수는 글을 잘 쓰려면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의 시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자주 이용하던 도서관 문은 굳게 닫혔다. 그렇다고 보고 싶은 책을 때마다 구매한다는 것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문인들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오프라인 강의가 뚝 끊인 것은 작가들에게 안 타까운 현실이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듯 최근 인천문화재단에서 <인천 문인 도서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읽고 싶은 도서를 지원받았다. 물론 인천에 주소를 두고 인천에서 활동하는 문인이란 요건이지만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업은 인천 내 작은 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작가가 지정한 작은 서점이 작가가 선택한 도서를 대신 구입하고 작가가 그 작은 서점을 방문해서 찾아오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마침 소설 쓰는데 도움을 받고자 인터넷으로 필요한 책을 찾던 중이었다. 가능한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문, 사회과학 도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읽고 싶었던 국내 작가의 소설 몇 권과 인문, 사회과학 도서 열한 권을 지원받았다.

세계사의 비극인 1, 2차 세계대전의 배경 사건을 살피기 위해 존 허스트의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를 선택했다. 어떤 역사 교양서보다 세계사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또한 우리 조선의 역사를 한 권에 담은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도 구입했다. 꼼꼼한 기록물에 저자의 재해석을 스토리텔링 식으로 쓴 역사서는 역사소설을 쓰지 않더라도 당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고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민낯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선택했다. 조선시대의 역사 전반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짚음으로서 그때의

1. 존 허스트,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
2. 설민석,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3. 노자, 도덕경
4. 수전 손택, 타인의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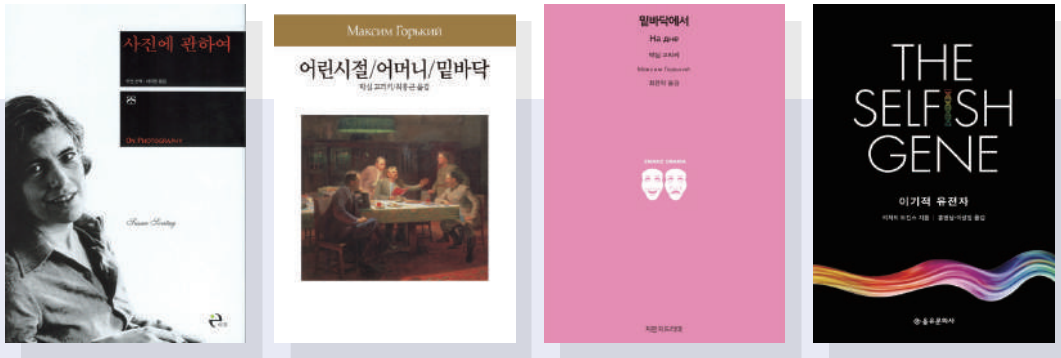
역사 속으로 한 발 깊숙이 들어가 보려한다.

도가의 시조로 알려진 노자의 어록을 모아놓은 <도덕경>도 선택했다. 도와 덕, 자연, 그리고 인생을 이야기한 책이다. 몇 번 강의를 통해 접했던 도덕경의 핵심은 사람과 땅, 도이다. 모두 자연을 으뜸으로 삼는다는 심오한 정신을 좀 더 깊게 의미해 볼 기회로 삼을 참이다.

그리고 수전 손택이 저자인 <타인의 고통>과 <사진에 관하여>도 주문했다. 우리의 현실은 SMS의 발달로 미디어의 자극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저자는 넘쳐나는 이미지 과잉이 타인의 고통에 정통해지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의 고통에 무감해진다고 지적한다. 일정 부분 공감한다.

소설을 쓰면서 많은 부분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고통의 문제이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화자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있어 표피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화자의 고통을 깊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읽고 싶었던 황정은 소설가와 김숨 소설가, 정영문 소설가의 소설도 골랐다. 러시아문학 중 가장 뛰어난 자전적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막심 고리키 작가의 <어린시절/어머니/밑바닥>도 읽고 싶어 선택했다. 혁명적 노동자와 계급 운동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그의 소설 속에서 뛰어난 리얼리즘 문학을 유심히 살피며 읽을 것이다.



5. 수전 손택, 사진에 관하여 6. 막심 고리키, 어린시절/어머니/밑바닥  
7. 막심 고리키, 밑바닥에서 8.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또 리처드 도킨스가 쓴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개정판 <이기적 유전자>도 골라 담았다.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책이 아니라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하려고 쓰인 책이라는 것에 끌렸다.

인천문화재단에 많은 부분 도움을 받고 싶은 인천의 작가들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 사업이 있기를, 그래서 많은 문인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 힘을 실어주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 번 인천문화재단에 고마움을 전한다.

이선우

2015년 영남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깃발이 운다》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첫 소설집 《바람은 불고 싶은 데로 분다》를 출간했다.  
김승옥 문학상 소설 우수상.(제1회)  
woo@9694hanmail.net



# REVIEW

The Art of Incheon

-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사)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사)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 제20회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

- 일시 : 2020.08.08.(토)~09.(일)
- 장소 : 인천국악회관, 인천수봉문화회관, 인천서구문화회관
- 주최 : 인천광역시,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주관 :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사)한국국악협회, (사)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사)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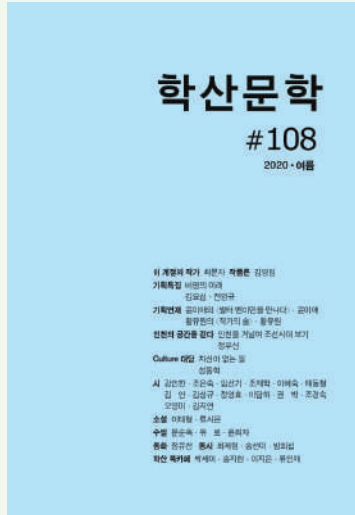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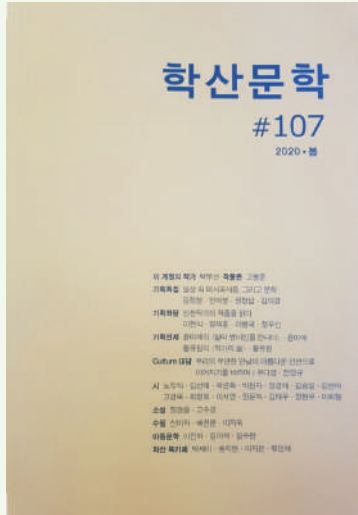
## 제29회 인천무용제 (Incheon Dance Festival)

### 인천무용제 (Wiz World Dance Festival)

인천무용제는 인천의 오래된 행사로 인천의 무용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내 무용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무용축제로서 199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9회째 맞이하는 행사이다. 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에서는 인천무용제를 국제적 행사로 확대하여 활동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민에게 보다 수준높은 무용예술을 향유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행사명 : 제29회 인천무용제(Incheon Dance Festival)
- 일시 : 2020년 6월 25일(목) 오후7시 , 6월 7일(토) 오후7시
- 장소 :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주최 및 주관: 사)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사)한국무용협회, 인천서구문화재단(공동 기획)
- 후원 : 인천광역시, 인천서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무용협회,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 인천광역시연합회
- 문의 : 인천무용협회 032-865-5474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무관중, YOUTUBE 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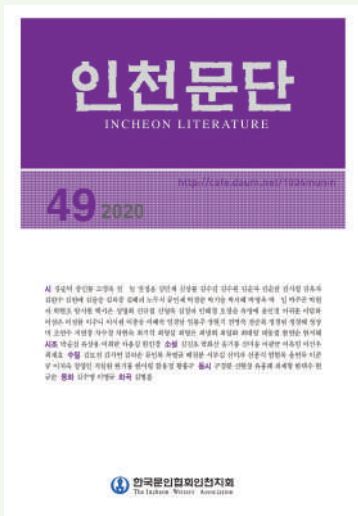


## 계간 『학산문학』 107, 108호 발간

1991년 12월 27일 『학산문학』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0년 3월 1일 『학산문학』 봄호 107호와 여름호 108호가 발간되었다. 28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학산문학』이 흔들리지 않고 문학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고 독자들로부터

더 사랑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학산문학』은 전국적 비중 있는 문학계 인사 초빙, 편집 자문위원회 구성 및 유능한 작가, 시인 등을 편집 위원회에 초빙하여 잡지 기획 등의 내실을 기하며, 기업메세나 운동을 통해 후원기업 결연과 정기 구독자 배가 운동 등으로 비용 충당 등 자립 여건을 보다 확충시킬 계획이다.



## 인천문협 연간지 『인천문단』 49집 발간 (2020. 8. 30)

인천문협의 기관지인 『인천문단』 49집에는 시 67명, 시조 5명, 소설 8명, 수필 19명, 동시 6명, 동화 2명, 희곡 1명이 참가하여 총 108명의 회원이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에 인천문화재단에서 원고료 후원을 받아 회원들에게 작으나마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했다.



## 2020 전국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울산 문학교류전 참가 (2020. 7. 25~26)

2020년 전국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학 교류전이 7월 25일~26일 울산광역시 호텔다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하창오 한국문인협회 수석부회장, 이희석 울산시예총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명학 울산대 국문학부 명예교수가 발표한 '한국의 지방문학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포지엄으로 열렸다. 전시는 울산시 예총 행사장인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거행됐다.

인천문인협회에서는 김사연 회장, 조영숙 부회장, 배천분 사무국장, 임봉주 이사, 고경옥 이사가 참가했다. 고경옥(마스크), 백서은(백령도에 가면), 오정순(수두), 임봉주(멸구슬나무), 정경림(원적산 유월) 회원의 시화 작품이 전시되었다.

## 인천문인협회 송년회 (2019.12.20, 베스트웨스턴 인천 로얄호텔)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인천문인협회 송년회는 김사연 (사)한국문인협회 인천지회장의 개회선언과 최병국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신입회원(8명) 소개와 인증서 전달식, 올해 작품집을 발간한 29명의 회원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협회 발전에 기여한 임봉주 이사와 백서은 시인 등 회원에게는 공로패를 수여 했다. 박현조 시인과 차수경 시인은 한국문인협회 표창을 받았다.

1부 행사가 끝난 후 단체 기념사진은 인원이 많아 분과별로 촬영을 했다. 2부 순서에서는 배천분 사무국장의 사회로 행운권 추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김사연 회장이 기증한 무릎 담요와 인천광역시약사회에서 기증한 관절 파스 40매 포장을 선물로 받았다.



## 2020 인천미술한마당축제 -백범정신을 그리다-

- 행사명 : 2020 인천미술한마당축제 (지상전)
  - 일시 : 2020. 4. 24. ~ 5. 15.
  - 주최 :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주관 : 2020 인천미술한마당축제 운영위원회
  - 후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예총, (사)한국미술협회
- 
- 2020 인천미술한마당축제 운영위원회 구성과 회의를 통해 행사전반에 대한 기획 및 운영을 계획하여, 인천미술협회 회원들의 기량 높은 작품들과 미술동호인의 정성과 역량을 담은 작품들을 안타깝지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전시하지는 못하고 도록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작품 전시와 함께 계획했던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크지만 작품집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행사의 기획의도에 따른 백범 정신을 기리는 목적을 성취하도록 노력한다.
  - 차기년도에는 많은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참가자 모두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한다.
    1. 참여작가 : 317명 - 회원(전문미술인) : 189명, 비회원(단체 등) : 128명
    2. 도록 1,000부 제작 3. 성과물 배포 : 인천 전역에 배포



## 2020 힘내라! 소상공인 전 - 코로나19극복 기증전-

- 행사명 : 2020 힘내라! 소상공인 전
- 일시 : 2020. 7. 17. ~ 7. 23.
- 장소 : 계양구청 계양아트갤러리
- 주최 :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주관 : 2020 인천미술한마당축제 운영위원회
- 후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예총, (사)한국미술협회

· 코로나-19로 침체된 미술인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도움이 되고자 예술적 가치를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미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새로운 희망 출발의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시장상황으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미술작품을

기증하여 새로운 희망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힐링공간 구성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1. 참여작가 : 43명
2. 성과물 배포 : 인천 관내 소상공인(전통시장) 43점 기증

## 2020 인천한국화대제전 -자연과 인간-

- 행사명 : 2020 인천한국화대제전
- 일시 : 2020. 8. 8. ~ 8. 13.
-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중. 소전시실
- 주최 :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주관 : 2020 인천미술한마당축제 운영위원회
- 후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예총, (사)한국미술협회

인천한국화대제전은 검여 유희강과 이당 김은호와 같은 대표작가의 맥을 잇기 위해서 200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사업이다. 인천한국화대제전은 제9회 대회부터 한국화 부문에 문인화 부문을 더해 진행하여 한국미술의 실체와 뿌리를 함께하는 두 장르를 통해 우리 회화의 진정한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한다.

## 제56회 인천광역시사진대전 시상식

- 행사명 : 제56회 인천광역시사진대전 시상식
- 일시 : 2020년 6월 6일(토) 오전11시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주최 : 한국사진작가협회인천광역시지회
- 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인천광역시지회
- 후원 : 인천광역시·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인천일보·경찰합동신문

· 1년이상 인천거주 시민으로 한정하여 인천 사진예술의 신인 및 향토작가 양성으로 17개 시도 지역간의 문화차이를 해소하고 추천·초대작가제도를 통한 지역사진문화 창달과 긍지높은 문화시민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사업이다.

입선, 입상 : 57점

초대, 추천 : 48점

도록제작: 1,000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시가 취소되고 시상식만 소규모 진행

## 제1회 에이블과 함께하는 거북이 가요제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가요경연대회로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보호 선생님, 인천시민 등 모두가 어울리고 하나가 되는 축제로서 속도는 느리지만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하는 거북이와 같이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도 희망하는 모든것을 "할수있다"는 생각으로 가요제 이름을 '거북이'로 정하였다.

- 행사명 : 제1회 에이블과 함께하는 거북이 가요제
- 주최·주관 :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 후원 : 인천광역시, 사)인천예총, 에이블문화장애인협회
- 협찬 : 티브로드(ICN), NIB남인천방송, 연예정보지, 인천지역 각 언론사
- 경연부문 : 자유곡 1곡

- 참가자격 : 인천지역 발달장애인
- 경연일시 및 장소
  - 예선심사 일시 : 2020. 8. 29.(토) 예선 참가시간은 개별통지
  - 본선대회 일시 : 2020. 9. 26.(토) 오후 2시 ○ (리허설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진행)
  - 본선대회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갈매기홀
- 시상 내역
  - 대상 1팀 : 상장 및 상금(30만원)
  - 최우수상 2팀 : 상장 및 상금(각 20만원)
  - 우수상 3팀 : 상장 및 상금(각 10만원)
  - 장려상 6팀 : 상장 및 상금(각 5만원)
  - 인기상 2팀 : 상장 및 상금(각 5만원)
- 특전
  - 에이블문화장애인협회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 지원기회 제공
  -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예술인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 공연 프로그램 참여, 수상증명서 발급



## 2020년 제24회 i-POP페스티벌

- 행사명 : 2020년 제24회 i-POP페스티벌
- 일시 : 2020년 7월 25일 14시
- 주최·주관 :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인천지회
- 후원 : 인천광역시
- 장소 : 에이블 스튜디오 ※ 본 공연은 온라인 무관객으로 진행

대중음악의 발원지인 음악도시 인천에서 대중예술인들이 주역이 되는 페스티벌로서 인천을 주제로 한 음악을 알리고 인천출신 대중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대중문화예술 활성화되는 문화조성에 기여하며 K-POP이 아닌 I(INCHEON)-POP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써 인천드림팝스오케스트라, 가수 김소희, 장채원, 김은주, 소유미, 걸그룹 에피소드, 싱어송라이터 영제가 같이 했으며 인천의 노래로 선정된 이별의 인천향, 눈물의 연평도, 연안부두를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추어 인천출신 가수들이 무대에 함께 불렀다.



## 2020 인천음악제

- 사업명 : 2020 인천음악제
- 사업일시 : 2020년 8월 22일, 9월 4일, 19일, 25일(4일간)
- 사업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엘림아트센터, 송도 솔찬공원, 트리플스트리트 야외공연장



## 제23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 사업명 : 제23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 사업일시 : 2020년 8월 23일(일) PM 06:00
- 사업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코로나19 시민위안 별빛 영화제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시민들, 그들의 생활에 위로가 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시민들의 삶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 위안 행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동차극장운영.

## 영화아카데미교실

영화와 영상미디어교육의 새 지평을 마련하는 영상문화 콘텐츠구축. 일반인, 학생 등 영상미디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영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영화인에게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천의 영상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미추홀필름페스티벌

인천을 상징하는 경쟁단편 영화제를 개최하여 영화와 영상미디어의 새 지평을 마련하는 영상문화 콘텐츠구축과 인천문화 알리기. 대도시로 빠져 나가는 유능한 인천의 젊은 영화인들의 축제 마당 기를 마련.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날씨나 계절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몇 명이더라’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끝나는 게 보편적이 되었다.

그로 인해 금년 인천예총 회원 협회들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하반기로 연기되거나 취소 되었다. 인천예총 회원 협회의 사업을 아카이빙하고, 인천문화계의 전반의 논의점을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예술인천』 또한 함께 연기되었다.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들으며 준비한 이번 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던 사업들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루고자 했다.

특히 이번호부터는 인천예총에 보관되어있는 소중한 자료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로 1992년에 개최된 「제1회 인천무용제」의 탄생 모습을 다루었다.

인천예총의 뿌리를 찾아서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20년 8월 『예술인천』 편집진 일동